



추도예배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송

384장 "나의갈길 다가도록"

다 같이

1. 나의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자는 하늘위로 받겠네 무슨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하리라 무슨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2. 나의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때도 죽한
은혜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매우 같하나 나의 앞에 반석
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3. 나의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할 수 없도다 성령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나라 갈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대표기도

가족대표

성경봉독

고린도후서 5:1~5

다 같이

1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2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
하노라 3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4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이니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5 곧 이것을 우리
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니시니라

말씀나눔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가정"

설교자

축복의 인사

오늘은 먼저 주님 품으로 가신 분을 추도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모여 추도 예배를 드리는 의미는 우리도 앞서가신 분처럼 주님 품에 들어갈 것을 미리 알고 소망하되 인생이 어떠한 것인지 미리 돌아보고,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영원한 복된 삶으로 연결되는지 깨닫기 위함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삶을 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 하나님께서 지으신 장막집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는데, 만약 우리 인생이 그렇다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그네 인생을 잘 살아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천국에 예비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심판 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유족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비록 몸은 이 땅에 살아도 믿음으로 준비하며, 우리도 우리의 장막 집을 벗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집으로 들어갈 믿음을 함께 소유하길 소망합니다.

2.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

사람의 몸은 흙으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사람의 생명이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죽음의 문제를 아무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형벌을 주신 대신에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만이 갈 수 있습니다. 땅에서 지은 집은 육체가 죽는 그 순간에 함께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돈을 아무리 쌓아도 명예를 아무리 얻어도 인생을 마치면, 땅의 집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지은 집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한 믿음, 한 천국을 함께 소유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권고의 말

고린도전서 13:1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갈 때 사랑이 제일인 줄 알고 살아감으로써 그 사랑이 넘치고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고단한 장막 같은 인생일 지라도 그 안은 천국 같은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복된 우리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 송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다 같이

-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잇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주기도문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